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7

2003

가정예배 신명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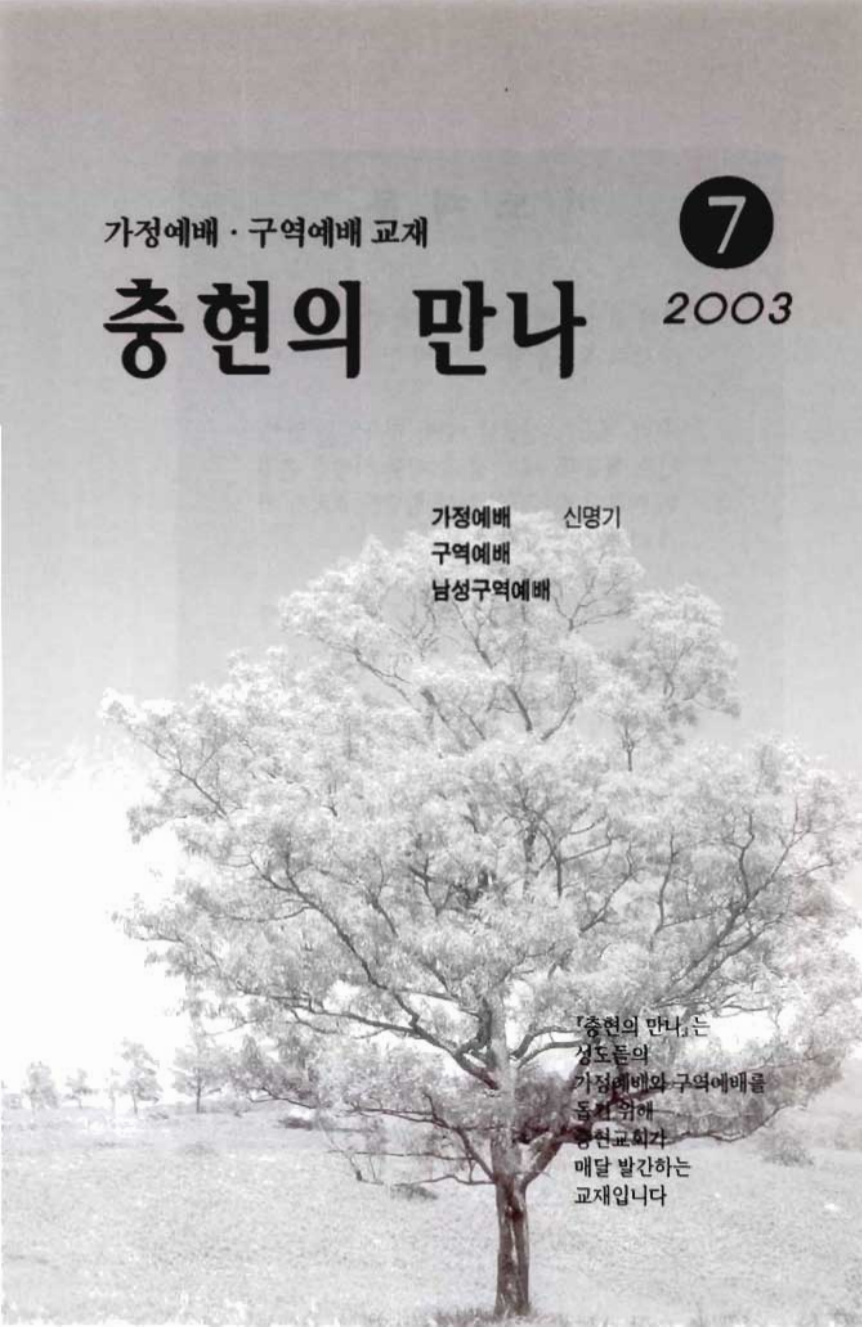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7

2003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신명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권 • 두 • 언

7월의 소나기

오늘 아침,
내리는 소나기를 보며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젖은 들녘,
당신의 벌판이 더없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진실로 은혜의 빗줄기가 필요한 곳,
메마른 우리네 마음
죄의 뭇매질에 흔들리는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소서!
그러므로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
긍휼의 빗줄기로 임하시고
상한 심령 씻기시고 또 씻기시는,
다함 없고
모자람 없는
은혜의 장마비로 다가오소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겔 34:26,27).

어느덧 7월 입니다!

어그러진 인생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심판과 형벌을 마침내 이기게 하시려고, 한 여름날 소낙비처럼 다가오시는 분을 생각해 봅니다!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굵은 소나기 같은 그분의 은혜라면, 거친 들녘같은 뭇 영혼들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내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의의 소낙비로 임하실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호 10:12).

2003년 7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신명기 서론

주전(B.C.) 1406년 경 모세가 기록한 본 서의 원제는 '두 번째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책의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본 서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율법이 본 서에 그대로 반복된 것은 아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선포하면서 모세는 이전에 선포되었던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을 확대 설명하였다. 이런 점에서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을 총 정리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본 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서를 단순히 옛날 이스리엘 백성에게 주어진 책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기울여 본 서를 읽도록 하자. 그렇다면, 신명기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첫째, 신명기가 필요했던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세는 왜 율법을 다시 선포해야 했는가? 그것은 구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멸망했기 때문이며 새 세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만일 구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순종하며 그것을 후손에게 전달해 주었다면, 모세는 율법을 다시 선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인가?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악함과 약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도록 하자.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책을 읽도록 하자(욥 33:14-17).

둘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각각의 계명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가 담겨져 있음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각각의 계명을 무심하게 읽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각각의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집을 건축할 때에는 반드시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계명이 있는데, 이런 계명 하나라도 무심하게 그냥 읽지 말라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이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시 19:8).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반응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셋째,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교회로서 계속 존속하기 위하여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며 참된 신앙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호소하였다. 또한 모세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각각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후손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며, 또 그 신앙을 전수해 주는 올바른 방식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면서 본 서를 읽도록 하자. 그리고 본 서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점검해 보도록 하자. 특별히 7월은 각급 주일학교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는 기간이다. 7월에는 우리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깊이 염려하며 기도하자.

내용분해

1. 머리말 / 1:1-5

2. 모세의 첫 번째 설교 / 1:6-4:43
   - *(1)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함(1:6-18)*
   - *2)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을 회고함(1:19-46)*
   - *(3) 가데스에서 모압 사이에 있었던 일을 회고함(2:1-3:29)*
   - *(4) 모압에서의 이스라엘(4:1-40)*
   - *(5) 요단 강 동쪽의 세 도피성(4:41-43).*

3. 모세의 두 번째 설교 / 4:44-26:19
   - *(1) 여호와를 섬기는 법(4:44-13:18)*
   - *(2) 음식에 관한 법(14:1-21)*
   - *(3) 십일조와 안식년 및 절기에 관한 법(14:22-16:17)*
   - *(4) 지도자들에 관한 법(16:18-18:22)*
   - *(5) 사회생활에 관한 법(19:1-26:19)*

4. 모세의 세 번째 설교 / 27:1-28:68
   - *(1) 그리심 산과 에발 산(27:1-26)*
   - *(2) 축복의 약속(28:1-14)*
   - *(3) 저주의 경고(28:15-68)*

5. 언약의 갱신 / 29:1-30:20

6. 끝맺는 말 / 31:1-34:12
   - *(1) 백성과 여호수아에 대한 격려(31:1-29)*
   - *(2) 모세의 노래(31:30-32:43)*
   - *(3) 마지막 유언과 축복(32:44-33:29)*
   - *(4) 모세의 죽음과 장례(34:1-12)*

1 (화) 여호와의 언약을 회고함

본문/신1장 찬송/460장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 죽음을 앞둔 모세가 출애굽 제 2세대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본 장에서 모세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던 사건을 회고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늘 가나안(천국)을 소망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의 깊게 배워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출애굽 제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신앙과 불순종' 의 결과는 언제나 실패요, 후회요, 통곡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늘 강조합니다. 반면에 '순종' 에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뒤따릅니다. 순종은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불순종은 지옥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20세 이상의 구세대는 광야에서 멸망시키셨지만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신세대(39절)는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합 3:2).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영원불변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순종과 불순종의 극명한 차이 (수) 2

흥미로운 사실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모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진군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고 제 2세대는 순종했습니다(민 13:1, 민 20:14).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상반된 태도 때문에 두 세대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1세대는 가나안을 향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38년 동안을 세일 산 주변을 맴돌며(1절) 온갖 시련과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13-15절). 반면에 순종한 2세대는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모압 평지까지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을 멸하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민 21:24).

이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은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하고 세월만 낭비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자들은 단기간에 놀라운 역사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귀한 삶의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 보람도 없이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크게 경계해야 할 것이며, 더 큰 믿음과 더 분명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준행함으로써 천국에 낙오 없이 도착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늘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늘 가나안에 낙오하지 않고 도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3 (목) 모세의 기도

본문/신3장 찬송/431장

가나안 입국이 허가되지 않았던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절히 구합니다(민 20:12 참고).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 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25절).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만 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26절).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최적임자는 출애굽의 지도자요 가장 헌신적이었던 모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므리바' 물 사건에서 혈기를 부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대표하는 모세의 가나안 입국 금지는 곧 율법의 열심으로써는 결단코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갈 3:23-29).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같은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를 은혜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엡 2:8).

가나안 입성을 소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26절)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만 해도 모세에게 넉넉히 만족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신 적이 없었고, 그가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매순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매순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금) 4

모세는 본 장에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행복의 관건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듣고 지키는 데 있음을 강조한 다음에(1-40절), 요단 동편에 설치될 도피성의 위치를 언급합니다(41-43절). 도피성이란 원한이나 미움 없이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의 보복자로부터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피난처입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사탄에게 쫓기는 죄인들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 숨어도 죄인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있을 때, 피의 보복자 사탄은 우리를 추격할 수도 해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머물면서 하나님의 공의(公義)의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송사하지만, 우리의 도피성이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를 내보이며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는 완전히 도말되어, 결국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 칭함 받고, 그 이후로 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죄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곤한 영혼이 편히 쉬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즉시 영혼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그곳으로 피하는 자는 모두 참 생명과 풍성한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참 도피성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5 (토)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본문/신5장 찬송/85장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호렙산 위에 임하셔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22,23절). 이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두려움을 느꼈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5절).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중보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극악한 죄악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정확하게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고,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27절).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일시적인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가 전혀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하신 중보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인간을 위해 중보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실로 모든 인간은 영원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요 14:6).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어떤 죄악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본 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순종할 것을 권면한 후에, 순종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고(4-9절), 불순종을 엄히 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자녀들에 대한 종교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20-25절).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구체적으로 일러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5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처럼 촉구한 데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경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을 수 없고, 혹 외적으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메마른 율법주의로 치우쳐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등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순종은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부터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라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등의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항상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묵상을 통해 그 삶이 변화되며,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와 이웃에게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7절).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하는 성도가 됩시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인격으로, 항상 그리고 대대로 사랑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7 (월) 철저한 순종

본문/신7장 찬송/340장

하나님께서는 선민(選民)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알려 주셨습니다. 특별히 본 장은 가나안 거민(居民)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盡滅)하라는 명령과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라는 명령을 강조합니다.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2절). 언뜻 보면 이 명령이 잔인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은 차고 넘치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게 되면 선민(選民)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4절).

본 장에는 비슷한 명령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神)을 섬기지 말라"(16절).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25절).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26절).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반복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명하십니다. 그 분의 명령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요일 5:3).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화) 8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늘 당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2절).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14절).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그들이 풍부와 번영 속에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3절) 가르쳐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이 예비 되어 있다는 진리를 교육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안식의 땅인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참으로 소망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며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刻印)되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 제목 / 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9 (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본문/신9장 찬송/351장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 이후부터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특별히 본 장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5절). 즉,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과거 악행과 패역함을 덧붙여 말합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6절).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18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24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여러 가지 악행들과 우리 마음의 온갖 패역함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렸을 적부터 모두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창 8:21). 그런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미덕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기리며 겸손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고전 15:10).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모세는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던 백성들을 보고 의분(義憤)에 사로잡힌 나머지 십계명 돌판을 백성들 앞에서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신의 큰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본 장에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회고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해야 옳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16절). 여러분, 이 얼마나 적절한 권고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도,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결국 완악하고 패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여준 불순종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외적인 행동보다 마음의 할례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외적인 행동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외적인 징표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엡 4:23-24)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사람만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속사람을 항상 말씀으로 정결케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1 (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본문/신11장 찬송/511장

본 장에서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당위성을 말하고, 곧이어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하는 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사로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사실과 거친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2-7절). 한 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결과로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행한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복과 저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순종을 촉구한다면(18절 이하), 우리는 더욱 힘을 얻어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토) 12

모세는 본 장부터 2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특별히 본 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장소에서만 예배하며 우상 숭배자들의 풍습을 배척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리켜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얻게 하신 땅'이라는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천국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답게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므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3 (주일)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

본문/신13장 찬송/ 395장

본 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거짓 종교를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백성을 권면합니다. 즉,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대(古代)에는 환상이나 꿈을 신의 초자연적인 계시로 여기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성경 또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슥 10:2).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꿈이나 환상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거짓 종교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어떤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 계시일 뿐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사실 꿈이나 환상도 적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성경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만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습니다(10절).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고 하셨습니다(8-10절). 심지어 한 성읍 전체가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도 단호히 그 성읍 전체를 멸하도록 명하셨습니다(15-16절).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그러진 이 세대 속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도록 합시다.

미혹케 하는 자를 멀리 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규례들 (월) 14

본 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規例)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1-2절)는 신체 자해(自害) 금지 규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체 자해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 앞에서 극도의 슬픔에 사로잡혀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고된 순례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살전 4:13-18).

중반부(3-21절)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한 기준은 사물 자체의 선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정한 것으로 구별된 것 중에는 위생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은 위생적인 기준을 초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하여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롬 12:1-2).

후반부(22-29절)는 십일조에 관한 규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려 레위인과 제사장을 봉양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오늘날에도 십일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데 이는 복음 사역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교회를 관리하며 이웃을 구제하는 등 하나님의 일에 귀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 ① 죄악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5 (화) 이웃 사랑의 규례들

본문/신15장 찬송/ 369장

율법의 두 가지 큰 기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본 장은 그 가운데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두 가지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채무 면제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1-11절). 본문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동족(同族)인 이웃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말합니다. 즉,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이웃과 형제가 진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줄 것(1-6절)과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하여 꾸어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오히려 구제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7-11절). 물론 이 말씀은 안식년마다 이웃의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안식년 만큼은 빚을 독촉하지 말고 채무자로 하여금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수확을 거둘 수 없는 안식년에 채권자가 가난한 채무자에게 빚 독촉하는 가혹한 처사를 막고 모든 사람이 안식년에 동일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종의 해방 규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12-18절). 특별히 본문은 동족으로서 종이 된 자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에는 종의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사람이 있다 하여도 다른 이방인과는 달리 품꾼으로 대우할 것과(레 25:39-40), 6년 이상은 종으로 부리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12절). 이렇게 한 것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함께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15절).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마 18:35).

기도 제목 / ①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 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세 가지 절기(수) 16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세 가지 큰 절기를 소개하는 것이 본 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첫째로, 본 장은 '유월절' 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1-8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유월절 양(요 1:29)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본 장은 '오순절' 이라고 불리는 '칠칠절' 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9-12절). 칠칠절은 유월절이 끝나는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밀의 첫 추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맥추절' 혹은 '초실절' 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절기는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현재 풍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과거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던 때를 생각하고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본 장은 '초막절' 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모든 곡물을 수확하고 저장한 후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의 장막생활에 대한 기념과 일년 간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일명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모든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며 감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질을 드려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 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7 (목) 공의의 하나님

본문/신17장 찬송/248장

본 장은 종교, 사법, 정치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할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2-7절은 우상 숭배자를 엄히 처벌하는 규례를 말해줍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 신앙을 단호히 배격하고 이단자들을 처리하는 문제에 관한 지침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거짓 신앙은 개인에게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그렇고 매우 치명적인 문제이므로 교회는 거짓 신앙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두 세 사람의 증거가 아니면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6절).

한편, 8-13절에서는 재판에서의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위한 상소 규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판결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서, 중앙 성소의 최고 재판정에서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통해 최후의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판결하는 자에게 권위를 주셔서 아무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12절). 끝으로, 14-20절에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의해 왕정 제도를 도입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국가의 왕들과 같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독재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왕은 '형제 중의 한 사람' 으로 세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은 결코 상충되는 두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 속에 세우도록 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마 6:10).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1-8절)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직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와 달리 이들에게는 생업(生業)의 기반이 되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분깃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십일조와 각종 예물들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중앙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각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들에게 동등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간에는 그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읽고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후반부(9-22절)는 선지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셋째로,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고 증험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한편, 본문의 말씀은 장차 이 세상에 참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1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요 1:11-12).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사역자들을 힘 있게 사용하여 주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9 (토) 도피성 제도와 증인 제도

본문/신19장 찬송/188장

본 장부터 25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간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중심으로 건강하고 거룩한 사회생활을 위한 규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 장은 개인의 생명과 인권(人權)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려고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1-13절).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무모한 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사회적 규범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도피처로 제공해 주셨고, 그리로 피하여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계표 제도를 정해 주셨고(14절), 공정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인이 증참(證參)할 것과 위증했을 시에는 위증자로 하여금 상대방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는 재판제도(15-21절)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로 보건데 참된 신앙이란 단지 종교적인 의무만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인격과 권익을 보호해주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생명과 소유와 권익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는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의 피난처에서 쉼을 얻으며, 그 쉼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 관한 규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장은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거룩한 전쟁임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1-4절). 이어서 전쟁에 참가할 수 없는 사유를 가진 병역 면제자에 관련된 규례(5-9절)가 소개하고, 또한 전쟁 시 무조건 상대국을 침략하기 전에 우선 화친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례(10-15절), 부패한 우상 문화에 오염된 가나안 족속만은 반드시 철저히 괴멸시켜야한다는 규례(16-18절), 그리고 전쟁 수행 시의 기타 행동 규범(19-20절) 등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수행해야 할 영적 전투의 규범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전쟁은 참혹한 수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전쟁을 수행해야 했고, 사랑과 긍휼과 평화의 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레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도 매우 단호히 대처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사단과 싸우는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깨뜨리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싸워 쟁취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하고 죄악 된 이 세상 및 악한 영들과 담대히 싸우도록 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 군사로 살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1 (월) 살인과 가정사에 관련된 규례

본문/신21장 찬송/199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성결(聖潔)과 가정의 질서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각종 법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본 장은 사체가 발견되었지만 범인을 찾지 못한 미해결 살인사건이 있을 경우 온 공동체가 죄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규례와(1-9절), 포로 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 유의해야 할 규례(10-14절), 아비의 편애로 장자권이 다른 아들에게 이양되는 그릇된 일을 방지하기 위한 규례(15-17절), 그리고 패역한 자식을 다루는 규례(18-21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죄악과 부패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오염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과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거룩과 경건의 핵심입니다. 아울러 사람들 간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각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아래 질서 있게, 그리고 거룩하게 생활하도록 힘쓰십시오. 이런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과 경건에 힘쓰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거룩과 경건에 힘쓰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 장에 이어서 본 장도 이스라엘 사회 내의 건전한 기풍을 조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장에는 이웃의 잃어버린 재물을 찾아주고 잘 관리해 주라는 이웃 사랑의 규례(1-4절)와 남녀 의복의 혼합 착용 금지 규례(5절), 자연 미물들의 보호 규례(6-7절),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라는 규례(8절), 생활에 있어 혼합을 금지하는 규례(9-11절), 옷단에 술을 착용하여 선민의식을 고취하라는 규례(12절),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남편에 대한 처벌 규례(13-21절), 강간과 간통 및 추악한 성 관계 금지 규례(22-30절) 등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옷단에 술을 착용하라는 규례처럼 오늘날에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규례들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규례는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주신 것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영혼과 육신의 순결과 거룩을 유지해야 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관용과 희생으로 대해야 하고, 자비와 긍휼의 정신으로 자연 만물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공의의 두 성품을 지니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며 또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그 기초를 두고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실로 우러나와야 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막 12:31).

기도 제목 / ① 각 교회학교가 여름 행사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초석인 천국일꾼을 양성하게 하소서. ② 강기엽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3 (수) 거룩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본문/신23장 찬송/204장

본 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한 삶을 진작시키고 그들의 삶에 사랑과 긍휼의 정신이 항상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규례들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본 장은 여호와의 거룩한 총회인 이스라엘 내에 영원히 혹은 일시적으로 추방되어야 할 자들에 대한 규례(1-8절)를 소개하고 있으며, 거룩한 공동체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성결을 유지케 하기 위한 규례(9-14절) 및 노예 관계법(15-16절), 음란자와 고리 대금업 금지법(17-18절), 서원 관계법(21-23절) 및 다른 사람의 소유에 관한 행동 지침(24-25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삶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즉,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확고하게 서며, 공동체의 지체된 사람들 상호간에 사랑과 거룩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흔히 우리는 개인적인 거룩을 중요시하면서도 공동체의 거룩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거룩도 소중하지만 공동체의 거룩도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온전한 신앙과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며, 동시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불법과 타락을 추방하고 공의와 질서와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교회로 서도록 힘쓰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엡 4:16).

기도 제목 / ① 각 교회학교의 교사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름 행사를 진행하게 하소서. ②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신24장 찬송/276장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보호법 (목) 24

앞 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총회인 이스라엘에게 공동체 안에서 순결과 거룩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던 모세는 본 장에서도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공동체에서 몰아내고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권고합니다. 특별히 본 장에서 모세는 여자들에게 절대 불리했던 시대 상황 속에서 이혼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1-4절) 새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는 법률(5절),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 수탈을 금지하는 법률(6-7절), 문둥병자를 위한 법률(8-9절), 가난한 자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한 제반 법률(10-22절) 등을 소개합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본받아 오늘날 우리도 주위의 연약하고 불쌍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과 경건의 길이요,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27). 하나님은 이처럼 이웃 사랑에 큰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 탄식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기도 제목 / ① 우리 각 사람과 충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풍성히 실천하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5 (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본문/신25장 찬송/404장

본 장에는 범죄자를 매로 다스리되 지나친 매질을 삼가라는 명령(1-3절), 비록 미물에 불과한 짐승일지라도 반드시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례(4절), 혈통의 보존을 위한 계대 결혼법(5-10절), 공정한 저울추로 거래하라는 명령(13-16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라는 명령(17-19절)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신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그분의 거룩한 품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비록 죄인이라도 과다하게 때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또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인격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태형법(笞刑法)은 철저히 죄인의 인권을 보호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갱생하는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이제 그를 믿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리도록 합시다.

참된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전한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본 장의 서두에서(1-11절)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셋째, 애굽에서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된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게 할 목적으로 가나안 땅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돈이나 물질을 바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요해지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시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요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까지 다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고후 9:7).

기도 제목 / ①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7 (주일) 하나님의 강한 의지

본문/신27장 찬송/488장

본 장은 가나안에 입성하면 곧바로 돌비를 준비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하나님께 제사드릴 돌단을 에발 산에 쌓으라는 명령(1-10절)과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과 저주의 산인 에발 산에 각각 이스라엘 여섯 지파를 세우고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주어질 것임을 명확히 선포하라는 명령(11-26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같은 명령은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 순복(順服)하는 것이 참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결코 중간 지대가 없으며 오직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 두 가지 결단만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가식(假飾)이 전혀 없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꾸미지 않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정직하게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정직하게 고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까? 또한 11절 이하에 보면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리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순종과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다른 모든 저주를 다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케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탁월함과 평안함 그리고 풍요로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1-14절),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각종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15-58절). 본 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은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생명과 평안과 풍요에 이르는 지름길이요, 불순종은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참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한편, 본 장에는 축복의 선언보다 저주의 경고가 더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불순종을 일삼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불순종의 길을 떠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순종보다 불순종에 더 익숙한 자들인지라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우리를 일깨워 순종의 길로 이끄시려고 다양한 형태의 저주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크게 오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먼저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시다.

기도 제목 / 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9 (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본문/신29장 찬송/460장

본 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약 40년간 방황했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1-9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10-15절), 불신앙자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경고 및 범죄한 자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16-29).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억지나 강압에 못 이겨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비결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십자가를 자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적을 수없이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즉, 우리 눈앞에 놀라운 기적이 수없이 많이 베풀어져도, 우리 앞에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과 눈과 귀를 주십사고 하나님께 늘 간구합시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순결한 자가 되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모세는 장차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징벌을 받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내다보면서 그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1-10절).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각종 율례와 명령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면서 순종을 통하여 생명과 복을 얻으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11-20절).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멸망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징벌을 받을 때조차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은총 가운데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심판과 고난은 멸망의 채찍이 아니라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두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결심은, 이처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죄와 싸우고 불순종의 길로 빠지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입니다. 두 번째 결심은,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불순종을 버리고 죄악 된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참회함으로써 생명과 구원과 평강을 누려야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핑계할 수 없는 죄입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갑시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합시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31 (목) 아비의 마음

본문/신31장 찬송/399장

본 장은 임종을 앞 둔 모세가 앞으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할 이스라엘 신세대와 그들을 이끌고 나갈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마지막 사역은 자신의 죽음을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며 염려할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미리 위로합니다. 또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막연한 미래 때문에 슬픔에 빠진 자기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요 14:1).

한편,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모든 율례와 명령을 기록하여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매 안식년과 초막절에 백성 앞에서 낭독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했습니다(9-13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13절).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교회가 행해야 할 중요한 사역 중의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천국 일꾼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올곧게 자라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 다같이
구역공과 ····· 인도자
기　　도 ····· 인도자
주기도문 ····· 다같이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구역성경공부를 위한 가이드

지난 6월호부터 구역공과의 내용이 수정 및 보완되었기에 본 구역공과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을 몇 달 간 부록으로 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역성경공부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 가이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본 구역공과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구역성경공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교재의 전체적인 구성 및 효과적인 사용법

본 구역공과는 위임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고 개인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구역예배에서 함께 나누고 배우도록 돕는 교재입니다. 본 구역공과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 들어가면서 - 각 과의 학습 목적을 생각해 보고 마음을 준비하는 단계
2단계 : 머물면서 - 성경본문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단계
설교문을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한 후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리하는 단계
3단계 :나가면서 - 각 과를 정리하고 주어진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는 단계

7월호 제 1과 '성찬을 위한 시간' 의 구역공과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본 구역공과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1742년 7월 스코틀랜드 '캠버스랑' 에서 거행된 성찬식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꼈고,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성찬식을 거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다음 성찬식은 8월에 거행되었는데, 2만 여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엄숙하게 성찬식이 거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다시 한 번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구원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으며 참된 회심의 역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 못지않게 성찬식도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라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개인➔ 이 부분은 각 과의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동기를 부여해 주고 각 과의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결코 이 부분을 소홀히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가볍게 읽고 서둘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적힌 글을 읽고 왜 이런 내용의 공부가 필요한지, 또 이런 내용을 공부함으로써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내용의 공부와 관련하여 배우고자 하는 관심 내지 열심이 생겨날 것이고, 좀 더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역장➔ 구역성경공부 인도자는 이 부분을 그대로 읽으면서 구역성경공부를 시작해도 좋고, 아니면 자신의 말로 소화해서 설명하면서 구역성경공부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번 과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구역식구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도록 이 부분을 힘주어 설명하십시오.

2 단계 :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오늘의 본문은 부주의하게 성찬식을 거행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일으킨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성찬식의 유래와 바른 시행 방식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여러 차례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개인➔ 여기에서 여러분은 성경 본문을 직접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본문의 배경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느 본문이든 그 본문의 배경을 알면, 각각의 구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읽고 각각의 구절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힘써 보십시오.

구역장➔ 구역성경공부 시간에는 이 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본문을 함께 읽은 다음에 곧바로 관찰 문제를 다루면 됩니다.

관찰 문제 ① 23절-26절 아래 빈 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가) 성찬식을 제정하신 분-(　　)
(나) 성찬식을 제정하신 때-(　　)

개인➔ '관찰 문제'는 주어진 성경 구절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관찰해 보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려운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 주어진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 본문을 읽어보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다만,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알아야 답하기가 쉬우니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똑같은 코끼리를 보고도 본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본문을 보고도 본 사람마다 생각이나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역성경공부 인도자는 구역 식구들이 다양한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합니다. '정답' 만 말하는 분위기, 틀리면 따가운 눈총을 받는 분위기는 안 되겠지요.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성찬을 위한 시간」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읽은 내용을 가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이번에는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개인➔ 개인적으로 설교문을 읽으실 때 지키면 좋을 방법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설교 테이프를 듣거나 설교문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실제로 설교를 듣는 마음으로 테이프를 듣고 설교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에 조용한 장소를 찾아 그 자리에서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읽은 내용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본 교재의 문제를 푸는 것은 그 다음 일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문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역장➔ 구역 성경공부 인도자는 구역 식구들이 설교문을 어떻게 읽었는지 점검해 보고, 설교문을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본 구역공과에서 사용되는 질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다양한 성찬의 모습'이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지금까지 여러분이 참여해 본 성찬식 가운데 가장 은혜로웠던 성찬식에서의 감동을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파나 교회마다 성찬식의 시행 횟수, 시행 방식이 어느 정도 다양할 수 있는 이유도 말해 보십시오.

개인➔ 첫 번째 유형의 질문은 단락의 핵심 내용을 짚어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며 성경 공부도 형식적인 공부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피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점검해보고 서로 나누도록 합시다.

구역장➔ 이런 유형의 문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반성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역 식구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역 식구들에게는 이런 유형의 문제의 취지와 유익을 잘 설명해 주도록 하십시오. 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구역 식구들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신앙의 부족함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잘 인도하십시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 함께 느끼고, 우리 자신의 부족

함을 통하여 다 함께 겸손하게 되며, 신앙적으로 더욱더 분발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 함께 하도록 잘 인도해야 합니다.

③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심'과 '나의 십자가'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된 새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에서 기억해야 할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고전 11:25, 히 10:12-18

개인➔ 두 번째 유형의 질문은 참고 성경 구절을 주고 단락의 핵심 내용을 좀 더 깊이 알아볼 것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질문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양한 성경 구절을 묵상하게 함으로써 성경의 진리를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확신케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풀 때는 반드시 참고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보고 깊이 묵상한 다음에 답을 기록해야 합니다.

구역장➔ 구역성경 공부 시간에는 굳이 참고 구절을 다 함께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성경공부 시간에 이미 한 번씩 다 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도자는 혹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여백에 참고 구절을 옮겨 놓아 필요할 때 읽어주도록 하십시오.

⑥ 점검과 고백 이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지금까지 성찬에 참여해 온 여러분의 태도를 반성해 보고, 앞으로는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새로운 결심을 말해 보십시오.

개인➔ 세 번째 유형의 질문은 각 과의 성경 공부를 총정리하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번 과에서 배운 내용을 조용히 묵상해 본 다음에 여러분의 과거 삶을 진지하게 반성해 보고 새로운 결심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답을 적어야 합니다.

구역장➔ 이 유형의 질문은 구역성경공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씩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의 반성과 새로운 결심을 뜨겁게 격려해 주어 그들이 실제로 그 결심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제 3 단계: 나가면서

나가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성찬을 받는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만일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한 채 성찬에 참여한다면, 질병이나 죽음 등의 심판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하생략)

개인➔ 이 부분은 위임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 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소리 내어 읽음으로써 공부를 마무리하십시오.

구역장➔ 성경공부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부산해지기 쉽습니다. 인도자 역시 빨리 정리하고 마치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구역 성경공부 인도자는 구역 식구들의 마음을 정돈시키고 이 부분을 차분하게 함께 읽어나가도록 잘 인도해야 합니다.

기도

1. 감사 /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식 안에서 성령의 비추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성찬의 시행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3. 구역 기도 /

개인➔ 늘 첫번째 기도제목은 공부한 내용을 기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장➔ 구역 성경공부 인도자가 구역 식구들의 형편을 살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몇 가지 더 정해주고 기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구역성경공부 인도자를 위한 몇 가지 지침

(1) 수요일에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구역성경공부 인도자는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오전부터 다음 주일 설교문을 미리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본 공과를 가지고 개인적인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부가 되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 저녁까지는 개인적인 공부를 마쳐야 합니다. 수요일에 있는 구역장영성훈련에 가서 배운 뒤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도록 하십시오. 수요일에 시작하는 것은 정말 너무 늦습니다.

(2) 구역장 영성훈련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수요 구역장영성훈련 시간에는 각 교구 목사님께서 각 공과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여 여러분이 미리 공부해 놓은 공과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궁금한 점들을 교구목사님께 질문하여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3) 본 구역공과의 흐름과 내용을 숙지하십시오.

각 공과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머리 속에 정리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구역공과를 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역공과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본문 관찰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미리 준비를 해 두고, 설교 읽고 나누기 문제의 경우 어떤 문제에 더 많은 시간

을 할애할 것인지 정해 놓으십시오. 각 구역 식구의 영적 상황을 잘 생각해 본 후에 구역 식구들에게 더 긴급하게 필요한 문제, 또 그들에게 더 유익할 문제를 선택하여 그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루면 좋을 것입니다.

(4)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성경공부 시간에는 문제를 다 풀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구역성경공부 시간에는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푸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두 문제라도 구역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열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서로의 영혼을 돌아보는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5) 구역 식구들의 개인성경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역 식구들이 개인 성경공부를 하지 못하거나 개인 성경공부를 어렵게 느끼면 구역 성경공부에 나오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자연히 구역 성경공부 모임을 멀리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 인도자는 매일 구역 식구들이 위임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일을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6) 구역 성경공부 모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구역 성경공부 시간에 모든 구역 식구들이 참석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가운데 큰 영적 유익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제 1 과

성찬을 위한 시간

찬송/ 284장(주 예수 해변서) 본문/고전 11:23-34

들어가면서

1742년 7월 스코틀랜드 '캠버스랑' 에서 거행된 성찬식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꼈고,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성찬식을 거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다음 성찬식은 8월에 거행되었는데, 2만 여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엄숙하게 성찬식이 거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다시 한 번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구원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으며 참된 회심의 역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 못지않게 성찬식도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신자는 그 안에서 풍성한 영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찬식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찬식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분명하게 얻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현 태도를 점검해 보면서, 교회가 행하고 있는 성찬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성찬에 참

여는 올바른 태도를 함께 공부해 봅시다. 그리하여 올바른 태도와 합당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영혼과 우리 교회 위에 베푸시기를 원하는 큰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오늘의 본문은 부주의하게 성찬식을 거행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한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성찬식의 유래와 바른 시행 방식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여러 차례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① 23절-26절: 아래 빈 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가) 성찬식을 제정하신 분- (　　)
(나) 성찬식을 제정하신 때- (　　)
(다) 성찬식에 사용되는 두 가지 재료- (　　)
(라)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의 의미- (　　)
(마) 성찬식에 사용되는 '잔'의 의미-(　　)
(바) 성찬식을 행하라고 당부하신 목적- (　　)

② 27절, 29-30절: 부주의하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죄가 됩니까?

③ 28절: 성찬식에 바르게 참여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④ 30절: 부주의하게 성찬을 거행한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었습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성찬을 위한 시간」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이번에는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① '다양한 성찬의 모습' 이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지금까지 여러분이 참여해 본 성찬식 가운데 가장 은혜로웠던 성찬식에서의 감동을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파나 교회마다 성찬식의 시행 횟수, 시행 방식이 어느 정도 다양할 수 있는 이유도 말해 보십시오.

답)

② '성찬의 목적' 이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과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고, 왜 주님이 별도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답)

③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심' 과 '나의 십자가' 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된 새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에서 기억해야 할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고전 11:25, 히 10:12-18

답)

④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깨끗이' 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언뜻 보면 성찬식은 과거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죽음만 기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성찬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기념하는 것일까요?

답)

⑤ '점검과 고백' 이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주저합니다. "내게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나는 봉사 생활이 부족해서…" 등등. 성찬식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겠습니까?

답)

⑥ '점검과 고백' 이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지금까지 성찬에 참여해 온 여러분의 태도를 반성해 보고, 앞으로는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새로운 결심을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성찬을 받는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만일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한 채 성찬에 참여한다면, 질병이나 죽음 등의 심판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들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부디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을 따라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고 죄를 고백하시는 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분명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들의 마음을 민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개인적인 오류들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위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기도

1. 감사 /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식 안에서 성령의 비추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성찬의 시행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3. 구역 기도 /

주일설교 노트 7월 6일

제목 : 본문 :

제 2 과

위험과 신앙

찬송/ 441장(비바람이 칠 때와) 본문/ 욘 1:5-6

들어가면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가벼운 회초리로 한두 대 얻어맞으면 거뜬히 해결된다는 식으로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과연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렵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번 과에서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신자가 겪게 되는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울러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를 당하고 있는 신자가 어떻게 하면 그 위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지도 배우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위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은 요나서 1장 5절과 6절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나서 1장과 2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읽고 관찰할 때,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가 순간순간 어떤 느낌, 어떤 심정이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① 1절-3절: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에 대해 요나가 보인 반응의 특징을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요나의 반응

② 4절,17절: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③ 5절: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불순종의 또 다른 결과는 무엇입니까? 히 3:13

④ 5절-6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뱃사공들과 선장은 폭풍 앞에서 각각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⑤ 17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요나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⑥ 2장 전체: 결국 요나는 어떻게 해서 회복됩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위험과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이번에는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① '불순종으로 생긴 위험' 이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요나를 보면서, 신자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느낀 바를 말해 보십시오. 삼하 12:7-14, 민 20:10-12

답)

② '위험 앞에 무력한 인생' 이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어려운 일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이나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껴본 경험이 있다면, 그 때의 경험을 말해 보십시오.

답)

③ '위험에서 발견되는 신앙' 이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신앙의 유익과 한계를 말해 보십시오.

답)

④ '선장을 통해 들린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잠의 위험' 이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가장 심각한 위험은 '영적인 무감각' 또는 '영적인 잠' 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심각한 위험인지 생각해 보고 말해 보십시오.

답)

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불순종 때문에 현실적 또는 영적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욘 2장, 호 14:1, 호 6:1-3

답)

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복음을 받아 누립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그분이 축복해 주실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에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통하여 다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다시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와 달리, 우리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나아가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갑시다. 아멘. 〈위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기도

1. 감사 /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2. 간구 / 영적인 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깨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단기 선교 사역이 그들을 깨우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3. 구역 기도 /

주일설교 노트 7월 13일

제목 : 본문 :

제 3 과

잠잠하라

찬송/ 342장(어려운 일 당할 때) 본문/ 막 4:35-41

들어가면서

지난주에는 신자의 불순종에 따르는 위험과 고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순종할 때에만 위험과 고난이 뒤따르고, 순종할 때에는 만사가 다 형통하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오직 기쁨과 승리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던 것과 달리 자신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당혹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잘되는 것일까요? 이번 과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강을 건너가다 돌연히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에 처한 제자들의 경험을 공부하면서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울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역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배우도록 합시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본문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본문의 사건을 머리 속에 그려보면서 여러분이 제자들과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한 구절씩 묵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2-25절도 함께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① 35절,36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36절: 배에는 제자들 외에 누가 함께 승선해 있었습니까?

③ 37절: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처한 곤경을 자세히 써 보십시오.

④ 38절: 큰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⑤ 39절: 예수님은 큰 광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⑥ 40절: 제자들을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잠잠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이번에는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① '돌연한 풍랑'과 '만사형통의 오해'와 '기대를 저버리는 풍랑'이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요한삼서 2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답)

② '풍랑은 있기 마련'과 '예수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풍랑'이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풍랑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옳습니까? 요 16:33, 시 56:1-3

답)

③ '이 풍랑 인하여서' 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본 경험이 있다면, 그 풍랑을 통해서 얻었던 유익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시 119:71

답)

④ '이 풍랑 인하여서' 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삶 속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신자들과 늘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기도문 형식으로 써 보십시오.

답)

⑤ '잠잠하라' 와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인생의 풍랑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나가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불어오고 있는 폭풍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완전한 평온을 가져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사실 매일 불어오는 폭풍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우게 하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만드는 기회의 선물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우리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의 능력과 충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폭풍을 지금 당장 잠잠케 하실 수 있으시며 완전한 평온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들은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그 분을 깨우십시오!

기도

1. 감사 / 풍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고 주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단순히 풍랑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인하여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확실해지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주일설교 노트 7월 20일

제목 : 본문 :

제 4과

갈렙의 신앙

✣ 찬송/ 344장(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 본문/ 민 13:30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이후 광야 여행 중에 하나님의 이적을 수없이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신앙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기적을 수없이 지켜보았으면서도 좀처럼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성공하고 있는가?" 자, 이번 과에서는 갈렙의 믿음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합시다. 특별히 이번 과에서는 개인적인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며 배우도록 합시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위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은 민수기 13장 30절 한 절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수기 13장 1절부터 14장 25절까지 읽으십시오.

① 27절-29절: 불신앙에 빠져있던 열 명의 정탐군들이 가져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각각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나쁜 소식

② 30절: 믿음의 사람 갈렙의 보고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③ 31절-33절: 갈렙의 보고에 대해서 열 명의 정탐군은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④ 14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⑤ 14장 6-9절: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한 가나안 정복을 왜 갈렙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갈렙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① '정확하나 믿음 없는 보고' 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열 명의 정탐꾼의 문제점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답)

② '능력은 하나됨을 통해서' 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일은 왜 중요하고 복됩니까? 시 133:1-3, 행 2:1-4

답)

③ '하나님이 하시면' 이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말해 보십시오.

답)

④ '믿음의 눈으로' 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충현교회의 단기 선교 사역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답)

⑤ '믿음은' 이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하여 뭐라고 충고해 주겠습니까?

답)

⑥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라는 단락을 읽고…

질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 내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우리들은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희생한 것보다 더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희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고난의 길, 매맞음의 길, 억울함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길로 행할 때에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온전히 순종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 하나님, 창조주로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여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취하기 위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임목사님 설교 중에서〉

기도

1. 감사 /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길로 행하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충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주일설교 노트 **7월 27일**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 다같이
구역공과 ····· 제4과 ····· 인도자
기　　도 ····· 인도자
주기도문 ····· 다같이

▶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5과'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 다 같 이
성경봉독 ..... 사 회 자
메시지 낭독
기　도 ..... 다 같 이
주 기 도 .....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3년 7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헌
· 집필진 / 만나 : 이희식(1-6일), 장　훈(7-12일), 임현덕(13-18일),
최종철(19-24일), 하종철(25-31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이태복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